

## ◇ 特別論文 ◇      나의 人生觀

### 人間哲學 序想 【2】    人間的인 哲學

朴致祐

나의 所謂 人間哲學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人間을 人間的으로 把握하려는 一種의 人間的인 哲學이다. 人間에 對한 哲學的 考察을 人間的으로 遂行하려는 人間學이다. 그러면 人間的인 哲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端的으로 말하면 事物을 人間的으로 把握하려는 哲學態度를 말함이다. 그러면 事物을 人間的으로 把握한다는것은 어떤 것을 말함인가? 그것은 事物 그것을 人間다운 人間의 立場에서 파악태도를 이룸이다.

우리 는 從來의 너무나 非人間的인 哲學을 그의 無能性으로부터 救出하기 爲하여 새로운 人間的의 哲學의 樹立을 渴望한다. 時代는 哲學으로 하여금 그의 枯渴狀態로부터 벗어나서, 自身 人間다운 人間의 內面的인 呼訴를 能히 答(容)을 수 잇는 生動的인 形式에까지 蘇生되기를 要求하고있다. 다시 말하면 現代는 人間的인 哲學을 要求하고있다. 새로운 哲學은 그러므로 「文字」로 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소리」로서 「呼訴」로서만 自身哲學됨을 要求하는 人間的인 哲學이어야만 될 것이다. 「學」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즘」(主義)으로서 世界觀으로서 人生觀으로서만 表現됨을 要求하는 哲學이어야만 될 것이다. 이리하여서만 哲學은 비로소 人間다운 人間의 深刻한 內面的 呼訴를 表現할 수 잇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哲學態度를 從來의 모-든 非人間的인 너무나 學的인 哲學과 區別하여 人間的인 哲學이란 名稱으로 부르련다. 우리의 以下企劃하는바 人間哲學도 亦是 徹頭徹尾...이러한 態度를 固執한다.

哲學을 嚴密한 「學」으로서만 理解할줄 아는 讀者에게는 哲學은 「學」으로서 보담도: 「소리」로서, 「呼訴」로서, 理解하려는 우리의 主張은, 事實哲學의 墮落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일찍이 現象學派의 始祖 훗셀(E.Hussepl)은 그의 論文에서 現像哲學을 論하여 現下 哲學이 當面한 單純狀態로부터 自身을 救出할 唯一의 出路는, 「嚴密學으로서의 哲學」의 確立에 求할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力說하였다.

一方 學派的으로는 全然 對號的 立場에 있는 老릭켈트(H.Rickelt)도 亦是 이와 大略 同様の 意見을 發表하였다. 【「學的哲學과世界觀」及「哲學 體系에의 테-제」 Logos. Bd22及21參照】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大體 哲學이 學이어야만될 本質的인 理由가 어디 있느냐고. 哲學은 本來「學」으로서 보담도 哲學하는 것(Philosophieren)이어야만 될 것이 아니 었는가? 事實 哲學은 그의 疏生에 있어 서는 Philosophia라는 그의 名稱이 가르키는 바와 같이 愛智(愛知가 아니다)이며, 다시 말하면 「智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동사적인 명칭이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哲學」은 「에로스」의 切實한 「憧憬」으로서, 「希求」로서, 人間의 內面的 要求 그것에 對한 述語的인 命名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 었든가, 眞實로 古代希臘에 있어 서는 哲學은 언제나 生活的인 必要로부터 內面的으로 要求된 世界觀 人生觀 그것이 었든 것이다. 자주 웨쳐지는 哲學의 無能은 哲學自體의 內包的인 缺陷으로부터 가 아니라, 本來 이같이 가졌으며 또한 가져야만 될 哲學의 生氣를 悟性的 必要 以上の 滿足을 채이게 하기爲하여 抹殺시켜버린 彼等 哲學者-特히 獨乙概念論者의 不名譽한 功績에 몰릴 性質의 것이리라. 既成哲學의 無能에 對한 責任은 實로 이 같은 悟性的인-너무나 「學的」인 過去의 哲學者들이 全的으로 짊어져야 될 것이다. 그들의 哲學은 哲學을 爲한 哲學이 었으며, 그들은 다못 哲學을 爲하여서만 哲學하였든 것이다. 그들의 哲學은 이리하여 마치 먹기를 爲하여서 가 아니라

鑑賞하기 爲하여만 裝飾된 石榴이 花盆과도 같다. 우리는 이와 같은 愛學的인 哲學者를 爲하여 새로운 尊號를 進呈한다. 曰「哲學學者」라고.

그러나 우리의 所論에 對하여 或은 이리케 反駁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른다. 卽「네가 意味하는 「呼訴로서의 哲學」도 「哲-學」인 以上 그 亦「學」이 아닌가」고. 그러나 그것은 나의 罪가 아니라 元來 조금도 學이라는 意味를 가질 必要가없는 Philosophia를 일부러 哲學이라고 翻譯한 明治時代의 哲學者 西周氏의 작난이다. 우리는 다못 되어 있으며, 또한 通用되고있는 이 述語를 愛用했음에 不過하다.

말할 必要조차 없거니와 우리의 意圖는 學一般을 否定함에 있지 않다. 學은 嚴然히 存在할 뿐만 아니라, 存在하여야만 된다. 例를 들면 數學, 物理學, 化學, 經濟學, 社會學等等. 우리의 의도는 다만 다른 것이야 如何튼 적어도 哲學만은 少毫도 함부러 學이어야할 아모러한 必要的 理由도 없다는 것을 말함에 있을 뿐이다. 哲學은 다만 人間의 內面的 要求, 호소를 全體로서 表現할수있을 世界觀, 人生觀이며 「이즘」이면 고만이란 點을 強調함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哲學을 가지지 안하면 안 된다. 觀照的인 哲學에 對하여 要求적인 哲學(Fordernde philosophie)를 批判的인 哲學에 對하여 呼訴的인 哲學(Appellierende Philosophie)의 確立을 要求한다. 銳敏性 代身に 誠實性을 가지고 人間存在의 根源的인 苦惱을 呼訴할수잇는 새로운 人間的인 哲學을 需要하여 마지 안는다. 【푸과이젤 著「實存哲學」1933參照】